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86.70	↓ 코스닥	683.49
	(-19.16)		(-1.36)
↓ 금리 (미국 9년)	2.529	↓ 환율 (원·달러)	1462.85
	(-0.055)		(-3.75)

침체 빠진
태양광업계
해외서 활로 찾는다
02



韓 26%, 베트남 46% ‘高관세’… 공급망 타격 초비상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中 34%·日 24%·EU 20% 등
전 무역상대국에 ‘10%+α’ 관세
美 FTA 체결국 중 韓 최고 높아

中·베트남도 고율 관세 부과로
현지진출 국내기업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현실화 됐다. 관세 부과 대상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무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양국간 ‘제로 관세’였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쟁국 대비 관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2일(미국 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이달부터 26% 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발표시 패널에는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으나, 백악관은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시된 26%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부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로 역

대 최고치였다. 미국 기준 우리나라는 8위 무역적자국이다.

더욱이 한미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측 타격은 경쟁국 대비 더 커질 전망이다. 또 한미FTA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미국측과의 FTA개정 협상에 떠밀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 등 우리 주요 기업 진출이 많은 중국(34%), 베트남(46%), 인도(27%) 등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된 국가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도 간접 영향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인애플타임즈에 따르면,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율은 미국이 66.2%로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 한국(7.5%)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후 미국 경기침체 확률이 기존 20%에서 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국제 무역통상 지도도 바꿀 전망이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즉각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맞대응 방침을 밝혔고, 중국은 기존 관세에 대응해 농산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나아가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



증시 떨어지고, 환율 뛰고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5.86)보다 19.16포인트(0.76%) 하락한 2486.70에 마감한 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84.85)보다 1.36포인트(0.2%) 낮아진 683.49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6.6원)보다 0.4원 오른 1467.0원에 마무리했다.

/뉴시스

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과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일 긴급 ‘민관 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오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주문 읽는 즉시 효력발휘

혼잡 우려…尹 직접 출석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3개월여 만에 드디어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릴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모든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3일째 되는 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적 분노·혼란을 불러온 만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선 4일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등 8인의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해 자리한 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을 낭독한 후에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히면, 탄핵소추는 인용된 셈이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한다. 반면 헌재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내지는 각하)한다”고 밝히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사이의 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엔 주문을 우

선적으로 낭독할 수도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모두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거친데다, 주요 쟁점 외에도 재판 중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낭독에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경우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

美 관세폭탄에 아시아 증시 ‘검은 목요일’

통상 전쟁 확대에 투자 심리 무너져
코스피·닛케이·항생지수 일제 하락

더 짙어진 통상전쟁 전운에 아시아 증시가 줄줄이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통상전쟁 양상이 격화되자 세계 각국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것이다.

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6% 떨어지며 2500선이 무너진 2486.70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 1조40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이날 3시30분 기준 0.4원이나 오른 1467원으로 마감했다. 원·엔 환율은 같은시간 996.33엔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인 977.77원보다 18.56원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시장들도 줄줄이 ‘검은 목요일’을 보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등이 1~2%대 하락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후 선물시장에서 미국 추가지수 선물가격(나스닥100지수선물, 다우존스지수선물, S&P500 지수선물, 러셀 2000 지수선물)은 급락했다. 상호관세 발표전 정규장에서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었다.

밤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면서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국민 통합 절실”
- ▲ 우원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피해보상에 국회가 앞장서자”

/사진 뉴시스

- ▲ 민주 “명태균이尹·洪 부부회동 성사… 홍준표 정계은퇴 약속 지켜야”
- ▲ 안철수 “조기 대선시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다”

- ▲ 국방부,尹 복귀해도 2차 계엄 없다… “불수용 입장 유지”
- ▲ 합참의장, 5군단 찾아 “DMZ 적 활동 더 세밀히 관찰하라”

침체 빠진 태양광업계, 美 중심 해외투자로 활로 찾는다

한화큐셀 매출 중 수출비중 80%
내수 악화 속 미국 사업확장 지속
연 8.4GW 규모 조지아 공장 구축

OCI홀딩스 미국에 3840억 투입
셀 공장 세우고 내년 상반기 생산

국내 태양광 업계가 침체에 빠진 한국 시장에서 눈을 돌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설치량 감소와 정책 지원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단독 공장 설립 등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3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기업 95% 이상은 지난해 국내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악화 주요 요인으로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정책 악화, 경기 침체, 규제확대, 송전선로 부족 등이 지목됐다.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5GW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5GW를 정점으로 지속 떨어지는 모습이다.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문 한화큐셀의 한국 공장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큐셀의 한국 공장 가동률은 33%로 지난 2021년 94.8%와 비교했을 때 약 61%포인트가 떨어졌다. 국내 시장 축소와 미국 공장 건설 영향이 맞물리면서 낙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큐셀의 내수와 수출 시장 비중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큐셀 수출 매출은 1조2351억원, 내수는 2966억원으로 전체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내수매출은 55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사이 46% 가량 줄어들었다.

내수 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연 생산능력 8.4GW 규모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국 태양광 모듈 수요의 25%를 차지한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한화솔루션이 해외 계열사에 제공한 채무보증금액이 6조원을 넘어서 이에 대해 경영 불안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화솔루션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 유

지에도 힘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OCI홀딩스 또한 미국 태양광 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 부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세워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집중한다. 투자금액은 총 2억 6500만달러(약 384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1GW의 태양광 셀 상업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셀 제조사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1W(와트)당 4센트의 첨단 세액공제(AMPC)를 받게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활로를 해외에서 찾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기대되는 시장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보다는 단독 공장 설립을 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계·기업 빚 절반은 ‘부동산 대출’… 매년 100조씩 증가

한은-금융위, 정책 컨퍼런스
“부동산 대출 증가세 적정 관리
생산기업 대출 인센티브 늘려야”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규모가 전체(가계+기업) 대출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금융연구원 부동산 신용 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가계+기업)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2013년과 비교해 2.3배 확대됐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가계 부동산 대출(주택 관련 대출+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산정한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포함)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부문은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용이 늘었고, 비은행은 2018년 이후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날 최 국장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돼, 기업대출 부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해 왔다. 가계대출은 담보가 있는 만큼 부실위험이 적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현행 15%)을 20~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 대출 가중치의 약 5분의 3 수준”이라며 “자본 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 여력을 부동산 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19.3%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JP모건 “美 상호관세 부과 경기침체 위험 높여”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경제학자들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미국 경제 모멘텀을 방해해 단기적인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NBC 등에 따르면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관세로 고정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4000억 달러 미만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1968년 세입법 이후 최대 규모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오늘 발표된 조치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을 1.0~1.5%포인트 올릴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은 대부분 2분기와 3분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경제 성장 원동력인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 위축돼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불황에 빠질 수 있다.

JP모건은 발표에 앞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JP모건은 더 나아가 이 전망치는 수출 감소와 투자 감소로 인한 잠재적인 하방 압력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하나 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JP모건은 관세 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혼란도 지적했다. 이것은 이미 긴축 재정 상태인 기업들의 심리와 자본 지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JP모건은 이번주 후반 정책 시행과 글로벌 대응 등 상황이 명확해지면 추가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외환보유액 4097억 달러… 3개월 만에 반등

한은, 3월 잔액 전월비 4.5억 달러↑
금융기관 BIS비율 준수, 예수금 증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지지선인 4100억 달러는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달러 약세에 따라 기타 금융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은 증가했지만,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거래 등으로 달러가 빠져나간 영향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96억 6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금융기관의 BIS 비율 준수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에예수금이 증가했다”며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기타 통화의 미 달러 환산액도 늘며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월 말 주요국 외환보유액〉(단위: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증감)
1	중 국	32,272 (+182)
2	일 본	12,533 (+127)
3	스 위 스	9,238 (+65)
4	인 도	6,387 (+81)
5	러 시 아	6,324 (+116)
6	대 만	5,776 (+0)
7	사우디 아라비아	4,329 (-13)
8	홍 콩	4,164 (-51)
9	한 국	4,092 (-18)
10	독 일	4,067 (+64)

/자료=한국은행

지난달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일제히 증가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2월 말 10.24에서 3월 말 104.04로 한 달 사이 3.0% 떨어졌다.

달러화 약세의 여파로 유로화 가치

는 4.1%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도 각각 2.7%, 0.7%씩 상승했다. 일본 엔화는 0.2% 절상됐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15억 3000만 달러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한달 전과 비교해 41억 5000만 달러 늘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38억 4000만 달러 줄어든 241억 7000만 달러(5.9%)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49억 8000만 달러(3.7%), 금 47억 9000만 달러(1.2%), IMF포지션 41억 9000만 달러(1.0%)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지난 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조 2272억 달러로 한달 사이 182억 달러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 2533억 달러, 3위 스위스는 9238억 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산업계, ‘퍼펙트 스톰’ 직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서둘러야

〈복합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전 5시(한국시간)께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에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타격 불가피…“정부 적극 협상해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상호 관세는 피했지만 수입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반도체 상호관세 제외 개별 관세 예고… 안심은 일러 韓 기업, 실적악화 불가피 전망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 대수는 413만대로, 이중 수출 대수는 278만대, 그 비중은 67%에 달했다. 이 중 대미 수출 대수는 143만대(현대차·기아 101만대, 한국GM 41만대)로, 전체 생산의 35%, 전체 수출의 51%를 차지했다. 미국 자동차 수출액도 347억4400만달러(50조 원)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동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63억달러(약 9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의 실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이익 감소폭이 각각 3조4000억원, 2조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6%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최근 가동을 시작한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의 연산 규모를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하면 비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3만대)과 기아 조지아공장(35만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30만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세 공장의 생산능력은 100만대에 이른다. 송호성 기아사장은 “HMGM에서 생산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과 별도로 북미 수출량이 전체 생산의 84%에 달하는 한국GM은 ‘관세 폭탄’으로 위기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미국 현지에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 가격인 인상될 경우 판매량을 유지하긴 힘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군산공장처럼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높아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업체 타격이 불가피 하지만 경쟁 국가인 일본, 유럽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 재고 물량을 확대하는 등 최대 3개월 가량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한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무너지면 회생이 불가하고 산업 생태계도 무너지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바우처,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투융편성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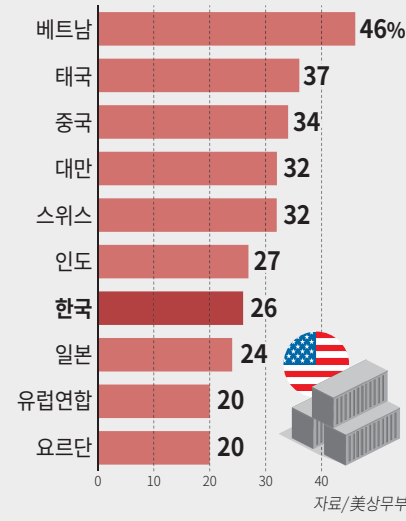
◆반도체·철강 상호관세 ‘대기모드’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업체는 상호 관세 중복 적용은 피했다. 다만 철강업계는 타 산업과 긴밀히 연관된 만큼 관세 영향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한숨 돌린 상황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도 최소 25%의 품목별 개별 관세를 예고한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등

주요국가 미국 상호 관세율

기본관세 10% 외 개별관세 추가 적용 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러 나라를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어 상호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 넘어 정치적 의도 분석 경제계, 한미 ‘정책조율’ 요청 상의 “신뢰기반 소통 이뤄지길”

현재까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만큼 반도체 대체제가 없어 품목별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세계, 美관세폭탄 강한 우려

경제계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추후 한미 정부 간 ‘정책 조율’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에 대해 감세를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속도·범위·규모 등을 보면 1기 때와 비교가 안 되게 과감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도한 우려로 산업계가 위축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관세를 산정한 근거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책 발표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업종일수록 관세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게 될 다른 국가들과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라며 “기업들의 입장에서선 물량 조절, 대체 공급망 모색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 대행 “위기극복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경제안보전략TF

범정부 차원 긴급 지원대책 지시 최 부총리 “시장안정조치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하고 있다. /총리실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급합금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제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전자업계, 베트남 등 정부 대응 예의주시

中·태국 등 글로벌 생산거점 영향

국내 전자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과 중국에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와 법인세 등으로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 연관 업체들이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26% 상호관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는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46% 상호 관세가 부과된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의 생산기지가 있다. 삼성의 경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상황이다.

중국에도 쑤저우 삼성전자공장을 비롯해, 중국 난징과 톈진 등에는 LG전자가 공장을 두고 있다. 태국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 공장을 가동 중

이다.

양사는 이번 상호 관세에서 멕시코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양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상당수는 멕시코 공장에서도 제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만들고 있다. LG전자도 멕시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자) 등 세 곳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두 업체 모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멕시코 공장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이혜민 기자

코스피 댔친 정치불안·무역전쟁… 개미·外人 ‘국장’ 떠난다

〈국내 증시〉

외국인, 8조8067억 팔아치워
개인도 해외 주식비중 확대 나서
국내 증시 흔들리며 투자심리 냉각
가상자산·달러도 변동성 커져

개인 투자자 김모 씨(44)는 해외 주식을 더 매입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여유 자금을 미국 주식에 70%, 국내에 30%씩 투자해 왔는데 최근 코스피가 탄핵 정국 장기화,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에 흔들리자 해외 주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투자 지역은 중국과 인도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날 생각이다”라고 했다.

동·서학 개미(국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패닉(공포)’에 잠입을 못 이루고 있다. 트럼프가 확전의 불씨를 쏘아 올린 글로벌 관세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의 수혜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트럼프 버블(거품)’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아시아 증시는 1~2% 하락했다. 가상자산도 곤두박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키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경고음까지 커지는 상황으로 한국도 그 그늘에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할 때다”라고 조언한다.

◆“관세, 마진 압박과 투자지출 부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관세전쟁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와 일정	
날짜	관세 부과 내용
1월 20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26일	콜롬비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및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30일 유예 발표
4일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발효
10일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14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언급
25일	외국산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 지시
3월 1일	외국산 목재 수입에 대한 조사 지시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효 및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발효
5일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30일 유예 발표
6일	캐나다와 멕시코 USMCA품목에 대한 25% 관세 유예 발표
12일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효
18일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 ‘더티 15’ 국가 언급
24일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국가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4월 3일 발효)

자료/대신증권

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감소다.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친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에 빠져 들고 있어서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전망치가 최대 0.3%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 성적이 좋을 리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 949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것이다. 박운철 iM증권 연구원은 “관세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정책으

로 상호관세 부과로 기업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기업들의 향후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잿빛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예고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었다. 영국 소재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제로성장’ (0.9%)을 전망하고 있다. S&P 글로벌은 ‘2분기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자동차 관세 영향과 대미(對美) 수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 크다는 점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투자는행인 노무라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제로(0%) 성장 경고에외국인투자자들은 올해 8조80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여기에 원화 가치 약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초 146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해 3일 오후 3시 30분 1467원에 전장을 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제가 반등할 만한 요인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도 대중 관세가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켰던 만큼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경기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전쟁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다 추가폭락,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변동성 큰 증시”, 분산투자하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도 두드러진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선물 6월물은 트로이 온스(1ozt=31.10g)당 전날보다 0.6% 상승한 3166.20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전장보다 0.

4% 오른 3123.05달러를 가리켰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달러화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달러 가치는 주요 10개국(G10)의 모든 통화 대비 하락했다. 이 기간 일본 엔화와 유로화 가치는 각각 달러 대비 4.9%, 4.6% 상승했고 스웨덴 크로나 가치는 달러 대비 10.7%나 올랐다. 금융서비스업체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선임전략가는 “외환시장에서 안정성의 보루이자 최우선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화가 이제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다”면서 달러 대체 투자처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개미들은 어디에 자산을 굴려야 할지 고민이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기 방어주 및 금, 채권 등에 대한 분산으로 리스크 헤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호전주에도 주목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정책 관련주들이 등락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기업 실적 영향력도 재부각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 경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실적 우상향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비만치료제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헤게모니를 보유한 우량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희비 엇갈린 투자시장… 금값은 치솟고, 가상자산은 줄줄이 ‘급락’

상호관세 발표 직후 비트코인 5% ↓
이더리움 2.1%·리플 1.8% 등 하락
금값, 3200달러 근접하며 강세보여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가 가상 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가상자산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께 1BTC

당 약 8만3600달러(1억23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1.2%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상호관세’ 공표를 앞두고 연일 약세를 지속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공개된 직후 3시간 만에 5%나 급락한 뒤 하락을 일부 되돌렸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도 하락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전일보다 2.1% 하락, 시총 3위인 리플(XRP)도 1.8% 하락해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전체로는 24시간 전보다 약 1.2% 하락해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트럼프가 강도 높은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가격을 빠르게 끌어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대(對)미 무역 흑자가 많은 25개의 주요 무역국에는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의 기본 관세는 오는 5일, 국가별 개별 관세는 9일 시행된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등이다. 중국에는 기존 20% 관세에 새롭게 부과되는 34%포인트(p)를 더해 54%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관세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발(發) 무역 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세가 부여됐던 캐나다·중국 등은 무

역 보복에 나섰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구성국들도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불확실성 확산으로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했지만,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세를 지속 중이다.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일주일 만에 100달러 넘게 상승했던 금 가격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공표 이후에도 10달러 이상 급등해 온스당 32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금값이 지난 3월 14일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긴 지 3주 만이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만 사상 최고가를 23번 경신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보호무역주의 시대… 보험업계, ‘글로벌 리스크’ 직면

자유무역 퇴조에 통상 리스크 확대
정치·경제 단절 가속 해외전략 흔들
보험사, 규제·지정학 변수 전략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세계 경제가 신(新)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재편되면서 국제적 영업망을 갖춘 보험사 역시 비상등이 켜졌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 자유무역에서 보

호무역주의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보조금,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외국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정책이다. 특히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각국도 안보와 경제 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지정학적 경제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달성했던 성장과 물가 안정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보험산업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 제약이 커지면 보험사의 리스크 분산과 해외 진출이 막히고 기업들의 정치적 위험이 가중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단절과 보험산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국가 간 투자 제한이 늘고 각국별 보험

규제가 달라지면서 보험사의 글로벌 확장에 장애물이 커지고 있다.

지정학적 경제 단절에 따라 사업 운영 리스크 분산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불안한 투자 환경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수요까지 높아져 보험사도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해외거래가 많은 국내 보험사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를 둘러싼 각종 규제 이슈가 연쇄적으로 겹치면서 글로벌 리스크 관리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수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글로벌 경제부터

영향을 받고 이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보험산업에 파급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면 영향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기업 혹은 해외와 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 정치적 위험과 국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보험사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산불 사고 관련 피해자 및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잘 푸냐?

사실 나 모를때..
관다코 그냥 찍어!

AI학습은 KT, KT는 AI 거침없이 찍어라

모르는문제를 찍으면
언제든지 AI가 문제풀이를 도와줘

$$\sqrt[n]{a \cdot b} = \sqrt[n]{a} \cdot \sqrt[n]{b}$$

$$\sqrt[n]{x^{2n}} = |x| = \begin{cases} x, & x \geq 0 \\ -x, & x < 0 \end{cases}$$



KT AI 관다 구독
24시간 AI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도와주는 AI 학습 플랫폼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KT 5G/LTE 요금제를 이용 중인 모바일 고객만 가입 가능한 구독형 상품입니다 / 정상가 기준: 관다 프리미엄 Lite 월 11,000원, 관다 프리미엄 18,500 / 프로모션 할인 적용(50% 할인): 관다 프리미엄 Lite 월 5,500원, 관다 프리미엄 월 9,250원 / '25.2.3~6.30일 가입 고객 대상으로 12.31일까지 프로모션 할인(50%)이 제공되며, '26.1월부터 2천원이 할인된 금액(관다 프리미엄 Lite 월 9,000원/관다 프리미엄 월 16,5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입니다/자세한 사항 kt.com 참조

“3조 규모 산불 추경요청… 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주거문제 시급… 불편 최대한 해소
재해주택복구자금 용자 정책 실시
1억2400만원, 연 1.5% 금리 적용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 협의

정부여당이 3일 기록적인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임시 주거 시설 지원, 주택복구자금 용자,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당정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피해 현장에 가보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주거 문제다. 임시주택을 조속히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임시주택이 내 집 같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거주

하면서 겪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방법도 꼼꼼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불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용자 정책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이후 17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

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법제 무상공급,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및 축사 복구 지원 등 농가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재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尹 복귀 시 개헌” vs 野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필요”

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나
시대정신 맞는 헌법 만들 것”

李,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국가 폭력, 역사서 재발태선 안 돼”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제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국민의힘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방법이 담기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시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승복’을 거듭 언급하며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며 “탄핵이 기각돼도, 또 인용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월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선 안 된다”며 “제주 4·3 당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에 계엄령으로 국민 학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꾸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12·3 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있다”며 “자신의安危를 위해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개,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중계 등을 통해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들은 각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득세 기본공제 180만원으로 현실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의

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

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펄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

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QR코드 스캔하면 찰나삼세 끝… 인증 절차는 번거로워

체험기

CBDC로 결제해보니

은행 앱 통해 전자지갑 개설
연계된 계좌, 토큰으로 전환
이용위해 3번의 인증 거쳐야
한은, 테스트 종료 후 개선

찰나삼세(刹那三世)라는 말이 있다. 찰나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크사나(ksana)에서 온 말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1초의 71분의 1일, 즉 0.013초로, 찰나삼세는 현재의 찰나와 0.013초 전의 과거, 0.013초 후의 미래를 더한 시간이다.

“결제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제하는 시간은 찰나삼세면 충분했다. ‘결제해 드릴까요’와 ‘결제 되었습니다’를 동시에 들었으니, 순수 결제 시간은 그만큼 짧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 QR코드 하나면 결제 ‘뚝딱’

지난 2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보기 위해 은행 앱(App) 이벤트란에서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신청했다.

우리가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듯 디지털 화폐도 넣고 다닐 전자지갑이 필요하다.

은행 앱 내 전자지갑을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찍고 계좌번호 인증을 거쳤다. 전자지갑은 은행 앱과 별개로 또 다른 비밀번호를 필요로 한다. 결제 시 사용할 비밀번호도 새로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만든 뒤 가장 먼저 해야



(왼쪽부터)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결제하기 위해 전자지갑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모습. 오프라인에서 키오스크 결제시, 결제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할 일은 예금통장에 있는 예금을 토큰으로 바꾸는 일이다. 전환 입금을 누르면 연계된 계좌번호와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뜬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 가장 많은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들렀다. 물건을 고르고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은행 앱 인증과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열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QR 보여주기와 QR 스캔하기 화면이 나온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주로 QR·바코드를 보여주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QR보여주기를 택했다. 바우처 결제 여부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QR코드가 생성됐다. 결제는 카카오톡·네이버페이, 삼성·애플페이 등과 같이 QR코드를 보여주면 매장직원이 스캐너로 찍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캐너를 대니 결제가 바로 됐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결제 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기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키오스크로 책을 구매했다. 책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은 뒤 결제 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했다.

은행 앱을 열고 지문으로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후 편의점 결제와 같이 결제하기→QR보여주기→바우처 혜택 적용 여부 선택→비밀번호 입력→QR코드 생성→키오스크 스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했다.

◆ 3번의 인증절차, 번거로워

아쉬운 점은 전자지갑을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인증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이었다. 은행 앱을 열기 위해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 인증,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또다시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했다. 평상시 지문 한 번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다른 OO페이보다 절차가 3배 이상 길다.

시험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제한적이었다. 약 3개월 간의 시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주로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타지역에서 발생할 수



/차현정 기자

있는 문제점은 확인이 어려워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결제가 개인의 자금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세금 추징 등에 민감한 자본가들은 어디에, 얼마될까까지 실거래 테스트나,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등의 기록될 여지가 있는 CBDC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CBDC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CBDC로 지급하면 소비자는 종이상품권, 바우처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식료품, 문화 등의 목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그 외의 결제를 제한해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말 테스트를 종료한 뒤 결과를 모아 서비스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개인 간 송금과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를 마련해 추가 사례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진단부터 생활비까지 ‘다시 일상으로’ 암보험

삼성화재는 3일 암 진단비는 물론 일상복귀 생활지원금을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암보험 ‘다시 일상으로’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발병 초기의 수술비용을 보전하는 ‘암 진단비’ 최대 500만원과 더불어 암 치료 후 회복 및 일상복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암든든생활지원금’은 암 진단 6개월 후부터 24개월간 매월 200만원, 총 48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나이는 19세부터 최대 65세다.

보험기간은 20년 갱신형이다. 최초 가입 후 최대 20년간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캐롯손해보험

삼성물산 ‘홈닉’ 통해 주택종합보험 간편가입

캐롯손해보험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홈닉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앱이다.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인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홈닉 앱을 이용하는 제휴 단지 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손보 부문 5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1위

DB손해보험은 ‘The 2025 NFY K-NBA’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KOREA-National Brand Awards) 손해보험 부문에서 5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은 세계적인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이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브랜드 인지도와 대표성, 고객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를 측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은 “5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손해보험 부문 1위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저축은행 2년 연속 적자… 금리 빙하기 예고

전국 79곳 합산 순손실 3974억 건전성 확보 위해 금리인하 전망 예금 평균금리 연 2%대 초읽기

저축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건전성 확보와 이자 비용 감축 등 긴축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 6.5%까지 상승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연 2%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합산 순손실은 3974억원 규모다. 지난 2023년(손실액 5559억원)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흑자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과 기준

금리 상승 여파에 대출수요를 찾지 못하면서 경영지표가 악화했다.

올해도 저축은행은 긴축경영에 나선다. 손실 예방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우선 PF 경공매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부실채권과 사업장 처분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쌓은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3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부터 2년동안 7조5000억원을 적립했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자금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23%로 법정기준(100%) 대비 13.23%포인트(p) 초과

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전성을 갖추면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진정이 요구된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12.81%다. 전년 동기(8.02%) 대비 4.79%p 상승했다. 저축은행이 기업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연간 0.48%p 하락한 4.53%로 집계됐다.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이자 비용 줄이기에 성공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은 4조1372억원이다. 연간 1조2136억원 감축했다. 지난 2023년 시

(A4·S5·S6)은 15%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대 인상 폭은 1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인천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42.7%(341명), 고양창릉은 26.6%(373명)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그룹에도 본청약 흥행은 이어졌다. 인천계양 A2·A3블록은 일반공급 기준 대부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주택형은 세 자릿수에 육박했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8411만원이다.

인근 시세는 ▲계양하늘채파크포레(6억원)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6억3500만원) ▲힐스테이트자이계양(7억6375만원) 수준으로 최대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구조다.

/전지원 기자 jiw13@

분양가 치솟은 3기 신도시 ‘흥행 가도’

시세차익 이점에 청약열기 지속
인천계양, 최대 1.8억 차익 예상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지만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이 유지되며 청약 열기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약 3년 동안 인천계양(A2·A3)은 추정가 대비 18%, 고양창릉

2025 서울모빌리티쇼

車 전시 넘어 미래 모빌리티 제시... 이동혁신 시대 연다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기업 참가
미래 비전·혁신 기술 대거 공개
HD현대, 굴착기 신모델 2종 선보

단순한 자동차 전시를 넘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를 엿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다양한 차량들을 선보이면서 각 브랜드의 미래 비전과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수소비전과 전동화라는 두 가지 대주제 아래 수소차·전기차 생태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날 최초로 공개한 디 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석자들이 각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뉴 넥쏘와 더 뉴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총 10종, 18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수입차 브랜드 BMW코리아는 고성능 순수전기 모델 BMW 뉴 i4 M50 xDrive 그란 쿠페와 BMW 뉴 iX M70

xDrive, 더 뉴 미니 쿠퍼 컨버터블과 더 뉴 미니 JCW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벤츠코리아는 고성능 2-도어 쿠페 '메르세데스-AMG GT'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또 최고급 차량 개인 맞춤 제작 프로그램 '마누팩투어(MANUFAKTUR)'를 소개했다. 이는 고품질 인테리어 소재를 고객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해 럭셔리

'디 올 뉴 넥쏘' 공개... 5분 충전·700km 주행

현대차 수소차 등 친환경 라인업 선보
전기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전시

현대자동차가 3일 신형 수소전기차(FCEV)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디 올 뉴 넥쏘'는 5분 충전에 700km 주행이 가능하며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인 '제로백'을 7.8초로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발표행사에서 '디 올 뉴 넥쏘'와 함께 전기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하고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고성능 N 전기차로 이어지는 친환경 라인업을 선보였다.

디 올 뉴 넥쏘는 지난 2018년 3월



현대차 디 올 뉴 넥쏘.

/현대차

출시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로 수소비전의 실체를 입증하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모델이다. 현대차는 작년 10월 선보인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기반으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아트 오브 스틸'을 반영해 소재의 물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디 올 뉴 넥쏘를 통해

구체화했다.

동력 성능 측면에서도 발전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에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최고 모터 출력 150kW를 달성했다.

디 올 뉴 넥쏘는 이같은 폭넓은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0km/h부터 100km/h까지 이른바 '제로백' 가속시간이 7.8초의 가속 성능을 달성했다. 단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의 DNA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용 기자

LG전자-기아, '슈필라움' 콘셉트카 선보

AI 기반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제안

LG전자가 기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LG전자는 3일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기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맞춤형 AI 가전을 적용한 '슈필라움'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LG전자는 자사의 'AI 공간 솔루션' 기술과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기술을 결합해 차량을 개인 맞춤형 생활·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의 첫 결과물로 기아의 전기 PBV 모델 'PV5'를 기반으로 한 '슈필라움 스튜디오'와 '슈필라움 글로벌우캐빈'이 공개됐다. 슈필라움 스튜디오는 1인 사업가를 위한 차량으로, 스타일러, 스마트미러, 커

한 나만의 차를 완성시킬 수 있다.

BYD코리아는 BYD 승용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인 '썰'을 공개했다. BYD 전기차 라인업 중 최초로 셀투바디(Cell-to-Body: CTB) 기술이 적용돼 e-플랫폼 3.0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HD현대는 굴착기 신모델 두 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차세대 신모델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HYUNDAI'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DEVELON' 24톤급 굴착기 2종이다.

HD현대는 이번 신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톱5' 도약을 향한 질주를 본격화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수출 45만 대·누적 매출 7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인도 3700억 수출 계약

인도육군에 K9 자주포 공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에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700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T(Larsen & Toubro)와 함께 인도 육군에 자주포를 공급한다.

이번 수출계약을 계기로 K9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다. 특히 현재 인도와 협상 중인 대공체계사업의 수출 가능성도 열렸다. 인도는 현재 육·해·공 통합작전능력 향상, 인프라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군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인도 뉴델리 주(駐)인도 한국대사관에서 이성호 주인도 한국대사, 손재일 대표이사,

아룬 람찬다니(Arun Ramchandani) L&T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추가 계약은 K9 자주포가 인도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차 계약 기간 동안 보여준 안정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인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7년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으로 유럽을 넘어 인도 등 아시아 방산시장에서 각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이노텍-카이스트, 미래 신사업 맞손

반도체 분야 등 기술개발 MOU

LG이노텍이 카이스트와 협력해 미래 신사업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카이스트와 광학,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분야에서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향후 3년간 ▲차세대 이미징 소자 ▲기관 미세 결합 검출 ▲자율주행 센서 ▲로봇 부품 제어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KAIST 학생을 산학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LG이노텍의 글로벌 사업 경험과 KAIST의 연구 역량이 결합해 미래 핵심 기술을 개



4월 2일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오른쪽)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이번 협력은 LG이노텍이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AIST와 함께 차별화된 미래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전자
갤럭시 탭 신제품 출시

'S10 FE·S10 FE+' 2종

삼성전자가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10 FE'와 '갤럭시 탭 S10 FE+'를 3일 국내 출시했다. 전작보다 더 얇아지고, AI 기반 인텔리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생산성과 학습 도구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탭 S10 FE가 10.9인치, 갤럭시 탭 S10 FE+는 13.1인치다. 두께는 전작보다 0.5mm 줄어든 6.0mm로 휴대성을 높였다.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성을 높이는 서드파티 앱 '클립 스튜디오

출시 가격은 갤럭시 탭 S10 FE가 69만8500원에서 99만7700원, 갤럭시 탭 S10 FE+는 86만9000원 116만8200원으로 책정됐다.

/이혜민 기자 hyem@

음식물처리기 ‘1조 시장’ 눈앞 中企 독주 맞선, 삼성·LG ‘가세’

구매보조금 정책 시장성장 가속
LG전자 40세대 시범사업 진행
실증·보완 거쳐 연내 제품출시
삼성전자 ‘더 제로’ 상표권 확보
비스포크 디자인 고급형 공략

과시성 소비를 지양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요노(You Only Need One) 소비’가 급부상하면서,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고기능성 제품을 준비하며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3일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GII)에 따르면, 2021년 2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시장은 2024년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기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대 30만 원, 부산시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음식물처리기 시장은 스마트카라, 미니스, 웰퍼 등 중소기업이 주도해왔다. 이들 기업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스마트카라는 최근 가격 부담을 낮춘 ‘스마트카라 400 SE’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어떤 음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부피를 최대 94%까지 줄이고, 처리 과정 중에도 추가 투입이 가능한 편의성을 갖췄다. 기존 제품 대비 20% 가량 낮아진 가격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큰



LG전자가 출시 예정으로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 설치 예시. /LG전자

관심을 받고 있다.

미니스는 소형 가구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컴팩트 모델을 선보이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웰퍼는 저소음·저전력 기술을 앞세워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시장에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면서 시장 판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안산시 공동주택 4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 보완 작업을 거쳐 연내 정식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물 처리를 넘어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동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더 제



스마트카라 400 SE. /스마트카라

로’라는 이름으로 음식물처리기 상표권을 출원하고, 프리미엄 라인인 ‘비스포크 더 제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고급형 제품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진출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가전업계 전문가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 규모 자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해왔다”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현대위아, 韓 첫 후륜구동 ‘2속 ATC’ 양산

기아 첫 픽업 ‘타스만’ 탑재

현대위아가 모든 노면에 최적화된 구동력을 분배하는 사륜구동(4WD)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대위아는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후륜 기반 전자식 4WD 부품인 ‘2속 ATC(Active Transfer Case)’를 개발, 양산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2속 ATC는 후륜(뒷바퀴) 구동 자동차의 구동력을 주행 상황에 맞게 앞바퀴나 뒷바퀴로 분배해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부품이다. 2속 ATC를 개발해 양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위아가 처음이다. 현대위아의 2속 ATC는 기아의 첫 번째 픽업 트럭인 타스만에 탑재된다.

현대위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2속 ATC를 개발했다.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주행 모드(2 HIGH, 4 AUTO, 4 HIGH, 4 LOW)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나 도심 주행 등 일상적 운행에서는 후륜구동 차량과 동일하게

달리는 ‘2 HIGH’ 모드를 선택하는 식이다. 일상에서 사륜구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후륜에 필요한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4 AUTO’ 모드를 선택해 주행하면 된다.

현대위아는 2속 ATC가 주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동력을 빠르게 판단해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운전자의 입력과 노면에 따라 0.01초마다 판단해 필요한 구동력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위아는 2속 ATC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극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산악도로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고온과 모래지형 내구 테스트를 펼쳤다. 영하 30도에 이르는 스웨덴 북부에서도 빙판길 신뢰성을 검증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눈으로 덮인 30도의 오르막길을 ‘4 LOW’ 모드로 주행하며 성능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대위아는 2속 ATC 양산으로 사륜구동 풀 라인업을 갖추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솔제지, 친환경 종이 포장재 日 진출

‘프로테고’ 커피패키징에 적용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인 ‘프로테고(Protego)’가 일본커피패키징 시장에 진출했다.

한솔제지는 프로테고가 일본 온라인 커피전문 쇼핑몰인 ‘Something Like That’에서 판매하는 원두커피 3종과 드립백 5종에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Something Like That’은 일본 내 커피 애호가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커피와 관련 용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피 전문 쇼핑몰이다.

세계 3위의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한솔제지는 이 같은 일본 커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친환경 커피 봉투 전문 업체인 소프트팩과 협업해



일본의 섬생라이프가 판매하는 원두커피 제품에 한솔제지 친환경 포장재 ‘프로테고’가 적용된 모습. /한솔

일본 수출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제품 패키지에 적용한 프로테고는 플라스틱 필름과 유사한 수준의 산소 및 수분 차단성을 갖춘 제품”이라며 “종이 소재 특성상 재활용이 용이해 자원순환체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AI·DX분야 등 첨단인력 양성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간담회
청창사, 일부시설 국민·기업 개방
漚 “적재, 적소, 적시 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등 첨단 인력 양성에 더욱 집중한다. 미국의 관세폭탄과 자국내 글로벌 기업 유치로 각국의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수요 기업을 연계하는 등 취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사진)는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방은 더더욱 그렇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대응이 가능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 소스를 다양화하고 무엇보다 적재, 적소, 적시에 기업들이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진공

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AI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 등을 위해 신기술중점학교를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22곳, 기술사관 사업단은 17곳에서 19곳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38억원을 투입해 총 6000명의 인력을 육성한다.

스타트업에 위한 AI 인력 양성을 위한 ‘이어드림스쿨’도 우수 교육생 연수 및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해 내실을 다졌다.

중소기업이 다니는 재직자의 AI·DX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DX 인력양성사업도 강화했다. 91개 계약학과를 통해 약 2600명, DX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약 6만명의 재직자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창업 경쟁력도 더욱 높인다.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올해부터 글로벌형(5곳), 투자형(6곳), 지역특화형(7곳)으로 개편했다. 글로벌형 청창사는 신산업, 초격차, K-뷰티 및 전통제조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트랙을 신설해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청창사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운동장, 체육관, 강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조이사는 “이와 별도로 운영중인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14대1의 경쟁률에 이어 올해도 10대1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다”면서 “올해는 지원대상을 60개사로 넓히는 등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취업 전 단계도 지원한다. 구축을 끝낸 ‘취업매칭 플랫폼(K-work)’에는 현재 수요 기업 800여곳, 외국인유학생 5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챗GPT 지브리 소동, 저작권부터 AI 쓰레기 논쟁까지 확산

현재도 ‘작품 흉내’ 명령수행 여전
작품·콘셉트, 저작권물 아니지만
원저작물 통한 학습 가능성에 논란

AI 생성물 따른 정보 오염 지적도
기업 ‘AI 쓰레기’ 입장·연구 없어

전세계를 불태운 챗GPT의 ‘지브리 이미지’ 소동이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부터 이용자들의 생성형 AI 오남용으로 인한 ‘AI 쓰레기’ 등 다양한 논쟁점을 드러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오픈AI가 GPT-4o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 된 후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소동’도 전세계적 규모로 일으켰다. 챗GPT의 지브리 소동은 챗GPT가 GPT-4o 이미지 생성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풍’ 이미지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시작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지브리 풍 이미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지브리 풍 이미지 생성하기’는 다양한 논쟁점을 드러냈다.

오가 이끄는 지브리스튜디오의 작품을 흉내낸 이미지를 사람들이 생성하면서 ‘지브리 소동’이라는 말이 붙었다. 3일 현재도 GPT-4o는 ‘지브리로 만들어줘’ 등 직접적인 지칭을 통한 명령은 거부하지만 작품을 흉내내달라는 명령은 수행하고 있다.

지브리 소동 후 오픈AI는 저작권 논

란의 한복판에 섰다. 특정 개인과 스튜디오의 ‘작품’이 과연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부터 AI 모델이 생성한 특정 작품의 AI 생성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논란이 됐다.

작품을 흉내낸 AI 생성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강력히 보호하되 작품과 콘셉트 등은 저작권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모델에서의 작품과 관련한 논란은 복잡한 데가 있다. 실제로 작품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 뒤에는 원저작물의 학습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 여부는 AI 모델 제작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AI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품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했을 때, 원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시 된다.

지브리 소동에 따른 논란은 또 있다. 이용자의 생성형 AI 모델 오남용에 따른 문제다. 최근 해외에서는 ‘AI 쓰레기(AI Slop)’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AI 생성물에 따른 정보 오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9월까지 소비자 불만 접수, 기업 보도자료, 구인 공고, 유엔 발표문 등 3억 건 이상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AI가 개입한 콘텐츠가 폭증했다. 특히 챗GPT 출시 후 AI 사용에 따른 AI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10배 이상 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무의미한 AI 생성 저작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AI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과 연구가 나온 사례는 없다. 오히려 xAI의 ‘그록 3’ 등 일부 AI 모델은 유명인사에 대한 이미지 생성까지도 막지 않으면서 오남용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모든 도구가 그렇듯 AI 또한 이용자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용자들의 수많은 명령어가 결국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AI 쓰레기’의 난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 기반 시장 정보분석 역량 강화

글로벌 데이터기업 케플러와 ‘맞손’
‘AI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완성도 ↑

SK텔레콤이 글로벌 데이터 기업 케플러(Kpler)와 협력해 AI 기반 시장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3일 케플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케플러는 원유, 가스, 전력, 해운 등 40여 개 시장의 실시간 무역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글로벌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이번 협



신용식 SK텔레콤 AIX 사업부장(신용식)과 케플러 공동 창업자인 장 매니에르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SKT

력을 통해 SKT는 에너지·물류 데이터를 AI 분석 플랫폼과 연동한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X) 4.0’과 ‘MCP(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해 외부 데이터 소스를 실시간 연결·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시장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AI 마켓 인텔리전스는 LPG·LNG·유가 등 원자재 트렌드를 예측하는 기업용 B2B 서비스로, 에너지·화학·반도체·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SK그룹 계열사에 제공한 뒤 외부 고객사로 시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AI스타트업, 관세전쟁 속 美 공략 박차

뤼튼테크놀로지스, 1000억 투자유치
딥엑스, 인재영입 통해 시장확장 박차
퓨리오사AI, 하반기 美 자금 확보 도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AI관련 국내 기업들은 미국 대규모 투자 유치, 현지 기업들과 협력 등 전략을 펼치고 있다.

AI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2021년 설립 후 4년 만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31일 뤼튼은 830억원을 추가 투자를 유치, 최종 10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를 마쳤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지난해 6월 프리시리즈B 라운드(약 250억원) 유치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로써 뤼튼의 누적투자 유치액은 1300억원을 기록했다.

LLM, 반도체 등 굵직한 분야가 아닌 AI 플랫폼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누적

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내 최초다.

기존 투자사인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캡스톤파트너스뿐만 아니라 굿위터 캐피탈이 리드 투자자로 신규 참여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굿위터 캐피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투자사로 쿠팡·당근마켓·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 바 있다.

AI 펍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AI반도체 기업 딥엑스는 지난달 10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객 및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전 NXP 제품 마케팅 디렉터인 전재두 미국 법인장을 전격 영입했다. 딥엑스는 전재두 미국 법인장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딥엑스는 올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주최 측인 CTA로부터 ‘꼭 봐야 할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미국 현지 투자사들이 현장을 방문해 딥엑스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

리벨리온도 미국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과 협력한다. 리벨리온은 지난달 열린 MWC25에서 미국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펄슨솔루션스와 협력했다. 양사는 AI인프라 구축과 기업 테스트 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을 이어간다.

최근 메타의 인수제안을 거절한 퓨리오사AI는 올해 하반기 미국 자금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밝혔다. 퓨리오사AI는 이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KDB 넥스트라운드 인 실리콘밸리’에 참여해 현지 투자사를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최근 메타로부터 1조2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제안 받은 이력이 하반기 투자 유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국내 AI분야 스타트업의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방문해 뤼튼, 업스테이지, 갤럭시코퍼레이션 등 국내 AI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쿠광플레이, ‘U17 아시안컵’ 경기 생중계

오늘 ‘韓 vs 인도네시아’ 경기

쿠광플레이는 23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나서는 17세 이하(U17)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3일 밝혔다.

쿠광플레이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U17 아시안컵(이하 U17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전 경기를 생중계로 선보인다.

조별리그 C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4일 오후 11시 50분 인도네시아 ▲8일 오전 2시 15분 아프가니스탄 ▲11일 오전 2시 15분 예멘을 차례로 만난다.

아시아 16개국이 참가하는 U17 아시안컵은 FIFA(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올해부터 대회에 걸린 월드컵 티켓이 4장에서



쿠광플레이가 17세 이하(U17)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쿠광플레이

8장으로 늘어났다. 8강에만 올라도 월드컵 본선이 확정되는 만큼, 대표팀은 일찌감치 월드컵 진출을 확정하고 우승을 위한 리듬을 맞춰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아시안컵은 U17 대표팀의 23년 만의 우승 도전이다.

/김현정 기자 hiki1@

우아한형제들, 안정적 가게 운영 지원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접수 시작

우아한형제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등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외식업 업주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 가동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사업의 4차년도 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은 2022년 1차년도 668명을 시작으로 2023년 2차년도 186명, 2024년 3차년도 180명 등 기금 운용 이래 지난해까지 10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을 지원했다. 누적 지원 금액은 36억원이다.

지원자는 연중 상시 모집하며,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카페를 운영하던 중 암을 발견해 도움이 필요했던 업주 A씨, 직접 야간 배달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업주 B씨, 조리 중 화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했던 업주 C씨 등이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은 우아한형제들의 창업자인 김봉진, 설보미 부부가 사회공헌 목적으로 설립한 봉앤설이니셔티브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우아한형제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봉진·설보미 부부가 약정한 200억원의 기부금 중 100억원으로 운용되며, 우아한형제들도 매년 기부금을 더해 기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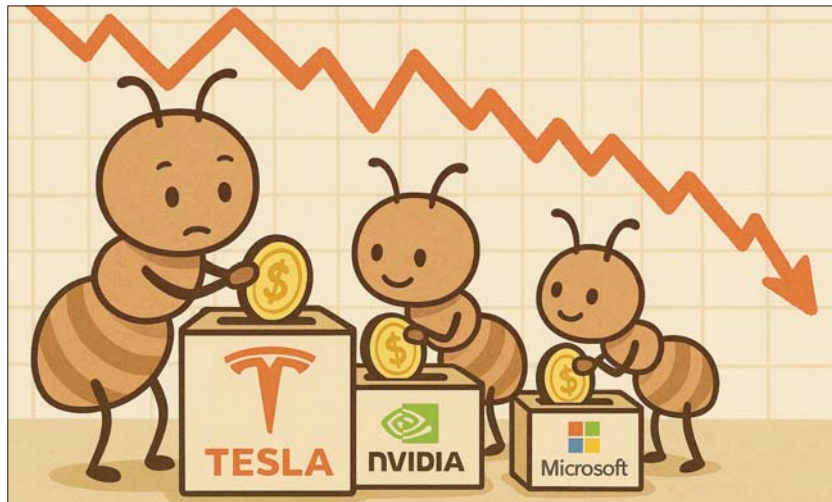
“서학개미, 美 빅테크주 편식에 ‘날벼락’… 분산투자 중요”

美 상호관세에 빅테크주 ‘휘청’
서학개미 보관금액 1위 테슬라
1분기 36% 손실 등 관련주 급락

“투자자, 연간 40% 평가손실 후
원금 회복에 최소 8.6년 걸려
과도 편중 줄이고 분산투자를”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끈다’라는 뉴스에 테슬라 주식을 사면서다.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은행빚을 내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석 달 새 30%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 A씨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앉으면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줄 알았다”라며 “무턱대고 투자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올 봄 잠 못 드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과감히 ‘기술주’에 베팅했다가 손



ChatGPT로 생성한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이미지.

실을 보고 있어서다. 추가 손실도 예고됐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휘청이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학개미들의 미국주식 보관금액 1위는 테슬라로 178억8436만달러로 2위인 엔비디아(100조7433만달러)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

음으로 애플(41억8433만달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9억4352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28억4354만달러) 등이다. 이외에도 보관금액 상위 10위 내 대부분이 기술 관련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개미들은 관세 전쟁에도 아랑곳 않고 ‘M7(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알파벳·메타·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올해 1분기 미 증시 순매수액은 113억2176만달러에

달했다. 서학개미가 기록한 미 증시 순매수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하지만 웃지 못하는 개미들이 많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1분기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4.6%, 나스닥지수는 10.4% 각각 하락했다.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는 1분기에 19.3% 급락했다. 경쟁업체인 브로드컴은 27.8% 폭락했다. 대표적 기술주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1% 안팎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36%나 빠졌다.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서명한 2일(현지시간) 시간외 거래에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인텔 등이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매그니피센트(M7)와 관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등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타격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학개미들의 빅테크 편식에 한국은 행까지 나서 경고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이 한은 블로그에 올린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주식 솔림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작성자는 한은 해외투자분석팀의 이재민 과장, 장예진 조사역이다. 이 팀장은 “2022년과 비슷하게 연간 -40% 수준의 평가손실을 본 뒤 개별 종목 대신 S&P 500 추종 ETF에 투자하기로 하면 원금 회복에 최소 8.6년이 걸린다”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M7,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줄이고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장 거래 감소에도 ‘선방’… 증권사, 영업익 58% 급증

주요 증권사 5곳 1분기 영업익 1.6조
국내 주식거래 하루 18.4조, 15% ↑
IPO 활동도 실적개선에 힘 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감소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주요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5616억원으로 전 분기(9870억원) 대비 58.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식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국내 주식거래대금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주식의 매수 및 매도 결제액을 합한 거래대금은 1510억4792만 달러로 전 분기(1775억3005만 달러) 대비 14.91% 감소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도 3월 말 기준 965억4285만 달러로 집계되며 지난해 말(1121억181만 달러) 대비 13.87% 줄었다.

반면,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는 올해 초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8% 증가했다. 대체거래소(ATS)까지 포함하면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전 분기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월 국내 증시 회복세가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황도 증권사 실적 개선에 힘을 실었다. 1분기 IPO 공모 규모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3.7% 늘었다. 1분기 채권 평가이익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국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9bp(1bp=0.01%p), 4bp 하락했으며, 카드채(3년, AA+)와 기타 금융채(3년, AA-) 금리도 각각 13bp, 15bp 내려가며 스프레드가 축소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뿐만 아니라 국채 기반 헤지 포지션에서도 일정 부

분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증권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면서, 점진적인 시장 환경 개선이 증권사들의 실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업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투자자산 손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종목 확대가 마무리되면서 2분기에도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수신 기반 확대를 통한 투자는행(IB) 및 트레이딩 부문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집무실에서 ‘우리WON MTS’ 출시 직후 직접 앱을 설치하고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투자증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우리WON MTS’ 홍보대사로 나서

우리투자증권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새롭게 출시한 우리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 홍보대사로 나섰다 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우리WON MTS’ 출시 직후 직접 앱을 설치하고 고객 관점에서 주요 기능들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고객들이 손쉽게 필요한 기능을 찾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폭넓게 탑재해 우리WON MTS의 장점을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을 향해 “우리WON MTS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먼저 이용해보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3월 19일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기업금융(IB) 사업에 나선 데 이어 본격적인 리테일 사업을 위해 ‘우리WON MTS’를 출시해 ‘IB와 디지털이 강한 종합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관세전쟁 비껴간 삼성바이오, 주가 ‘날개’

전일대비 6% 오른 111만3000원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코스피를 덮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6% 오른 111만3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강세는 의약품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차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역별 매출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 65%가 유럽향이며 미국향 매출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며 “현재 공급 계약에 따르면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 부담항목이어서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적 기대감도 크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매출액이 1조1713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은 4014억원으로 81% 급증할 것으로 봤다. 시장 컨센서스(매출액 1조1594억원, 영업이익 319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대환 기자 kdh@

KRX, 6월부터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1시간 연장하고 거래상품 10개 확대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 초 파생상품 시장 자체 야간거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 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거래 가능 상품도 10개로 확대된다.

앞서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도입과 관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도입을 위해 전 회원사 대상 사전설명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야간거래 전산시

스템 구축·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야간거래 모의시장 운영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거래소는 현재 해외거래소(Eurex)와 연계해 야간거래를 운영 중이지만,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정규거래(주간거래)와 다른 계좌를 사용하고,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회원사를 통해 참여하는 등 거래 불편이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정규거래와 동일한 거래제도를 적용 후 운영하는 ‘자체 야간거래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서부발전, 천연가스발전소 착공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수요 충당”

공주서 석탄발전 대체 사업

이정복 사장 “에너지전환 정책 부응”
건설기간 중 일자리 15만개 창출
주변 지역 주민 발전지원금 지급

한국서부발전이 구미에 이어 공주에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며 ‘석탄 →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전소 인근 지역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는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10만3000㎡ 부지에 건설되는 500MW(메가와트)급 발전소로 태안 발전본부 2호기를 대체하게 된다. 약 6812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4월 준공 목표다. 설비규모는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1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2년 11월 주민설명회, 지난해 2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공주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증가 세로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공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생산할 전력은 공주에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대전·충청 전력수요를 충당한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지난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서부발전

건설 기간 중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지고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한 발전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는 산업, 농공단지 지역을 활성화할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발전과 협업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건설 기간 중 환경·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미 가스터빈 시운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를 충남 최저 수준인 4ppm(피피엠) 이하로 떨어뜨린 최적 연소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안전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는 등 최첨단 지능형안전 기술을 적용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 도시인 공주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의 미래를 뒷받침할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 10기 중 6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태안 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할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이은 서부발전의 두번째 석탄화력발전 대체 사업이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 501.4MW 규모로 건설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나무의사’ 꿈꾸는 중장년층 늘어나

산업인력공단, 산림 등 취득자 현황
5년 새 44% 증가, 50대 이상 절반

산림·식물보호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는 50대 이상 응시자와 자격 취득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재직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6개 종목’ 국가기술자격 응시·취득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 자격은 산림분야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4개, 식물보호 분야는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2개다.

분석 결과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자격 응시인원 2019년 1만6817명에서 2024년 2만681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격 취득자도 5599명에서 8084명으로 연평균 6.2% 늘었다.

이는 최근 산림보호 관련 법령의 개

정, 산림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산림사업 증가, 도시조경 및 반려 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돼 나무의사가 아니면 수목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종사자나 예비종사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설문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격 취득자의 55.9%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물보호기사를 제외한 모든 등급 자격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응시 당시 경제활동 상태 또한 재직자(임금근로자)가 많았다. 응시 목적은 취업 43% 및 자기개발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자격은 50대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日 투자자에 ‘한국 국채 매력’ 알렸다

기재부, 일본 도쿄서 ‘국가 설명회’

기획재정부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최근 일본 도쿄를 찾아 이른바 ‘국가 설명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일본 투자자들에게 한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 매력도를 알리는 일종의 홍보 활동이다.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이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종자금이 2조5000억 달러(3663조 원)에 달한다.

최 대사는 세계 최대규모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 총운용책임자(C

IO)와 면담을 갖고 ▲국채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채통합계좌 도입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 국채 투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GPIF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 시장 제도 개선 속도와 범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런 제도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투자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사는 또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 대표 및 레조나 자산운용 CIO 등 주요 투자자들과도 만나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국채 투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 국채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푸드+, 매운맛 열풍에 수출 실적 ‘썰렁’

농식품부, 1분기 수출액 최고치 경신
라면·소스 인기로 31.8억달러 달성
농약·비료 등 농산업 전반 수출 증가

올해 1분기 농식품에 더해 전후방 산업까지 아우르는 ‘K-푸드+’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가공식품의 인기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억 달러 넘는 수출 실적을 낸 품목 중 라면 등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3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다.

농식품의 경우, 전년보다 9.6% 증가한 2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재차 경신했다. 특히 권역 중에서는 서아시아 산유국 6개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에서 37% 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영국·유럽연합(EU)은 34%, 북미는 21%, 몽골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은 15% 증가했다.



한국 및 현지 조리장들이 지난해 10월 초 이탈리아에서 김치 스파게티·삼계 리조토 등 ‘퓨전 K-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면 수출액은 27.3% 증가한 3억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매운맛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중국, 미국에 더해 아세안, EU 등 전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소스류도 전년보다 9.1% 증가한 1억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고추장·된장 등 전통 장류와 더불어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와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의 증가세가 컸다. 닭고기는 전년보다 14.1% 증가한 26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산란

노계를 선호하는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인데, 타국산과의 경쟁에서도 13.0%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삼계탕이 가정간편식(HMR) 제품으로 현지 유통매장에 입점돼 수출이 늘었다. 수출 2년차인 유럽에서도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가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한 농산업의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7억 달러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증가율이 무려 60.8%에 달했다. 두 달간 664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농약은 올해 33.7% 성장한 2억1220만 달러를 수출했다. 중국·브라질·베트남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종자는 중국 등에서 수요가 늘면서 전년보다 49.1% 증가한 1260만 달러, 비료는 동남아에서 고품질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16.9% 증가한 1만1640만 달러를 수출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K-푸드+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돼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식품산업, 글로벌 판로 확대 나선다

aT, 9개국 박람회 참가기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까지 받는다.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식품 관련 박람회는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 위펙스(WOFEX) ▲9월 호주 시드니 파인푸드(FFA)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알(SIAL) 등 총 9개다.

정부와 aT는 다양한 K-푸드를 현지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통합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 ▲사전 연결이 성사된 현지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회 등을 지원해 박람회 참가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aT의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홍문표 사장은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를 찾아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홍 사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 주요 수출기업 현지법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K-푸드 유통 동향과 업계 애로를 파악하고 향후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www.dseshop.co.kr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5년간 1000억’ 글로벌대학 사업 올해 10곳 선정… RISE 연계 강화

교육부-글로벌대학위원회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 확정·발표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자격 한정
선정 대학 간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오는 9월, 본지정 결과 발표 예정

5년에 걸쳐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신규 지정이 올해 마무리 된다. 올해 10곳을 추가 선정하면 총 30개 규모로 글로벌 대학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글로벌대학을 2025년 5개 내외, 2026년 5개 내외 지정하려 했으나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글로벌대학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올해 10개 이내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라이즈 생태계에서 글로벌대학의 혁신 선도 역할을 고려해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확고히 견지하되 본 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 자격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국·공·사립 전체 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으로 한정됐다. 단, 대학 전체 정원 중 수도권 소재 캠퍼스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선정 대학 간 지역 균형은 별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대학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당초 사업 첫해는 대학 한 곳당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지정 규모에 따라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됐으나 본지정 평가에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하는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타 대학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혁신 방향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지정 대학과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정 평가는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대학 내·외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벌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대학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이 창출됐고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1기·2기 글로벌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공유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더욱 고도화된 혁신모델들을 적극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대학은 지자체와 산업체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들과 밀접히 연계해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글로벌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하대, 게임분야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실감형 콘텐츠 게임기획 등 4개 분야
약 10개월 동안 체계적 훈련 예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2025년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의 게임분야 국비지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3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진행하는 게임분야 국비지원 교육은 ▲실감형 콘텐츠 게임기획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실감형 콘텐츠 게임프로그램 개발 ▲실감형 콘텐츠 3D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양성VR·AR 3D 게임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등 총 4개 교육 분야로 구성돼있다.

이 중 기획, 개발, 모델링을 교육하는 3개 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애니메이터 양성 교육은 5월께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게임 분야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수강이 지원돼 수강료가 전액 무료다. 높은 교육 수준과 훌륭한 취업 성과로 국비 교육을 통해 게임업계에 진출하려는 지방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게임 분야 국비 지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약 10개월 동안 비전공자도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고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게임분야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포스터./인하대

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수료할 때까지 교재비, 교육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에셋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오후 10시까지 지습이 가능한 훈련 환경도 갖춰져 있다.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 게임 분야 취업 교육은 한 해에 1개 기수의 훈련생만 선발한다. 오는 4월 25일 개강을 목표로 현재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산불피해 재난구호금 50억 편성

자원봉사자 160여명 긴급 투입

서울시가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을 증액해 산불피해 지역에 구호와 복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지역교류협력기금 증액 편성(안)이 오후 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먼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중 40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해 영남지역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억원은 향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예비재원으로 확보한다.

구호금은 ▲전소 주택 처리 등 복구 위한 중장비 지원 ▲농기계 구입 ▲임시 조립주택 설치 등 산불 피해가 집중된 영남지역의 빠른 재건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구호금 외에도 4일과 5일 산불 피해지역에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실시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서 진행
‘찾아가는 시험서비스’도 시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5일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서 ‘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76명, 중졸 1016명, 고졸 3796명으로 총 5288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8명, 재소자는 50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 1곳에서 시행되며, 중졸은 석관중·대명중 등 2개교에서, 고졸은 신현중·연희중·잠신중·신목중·구암중·자양중 등 6개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시험에는 2명의 지원자가 각각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재소자들을 위한 별도 고사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란 고사장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자를 위해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도 제2회 시험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모든 지원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고사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고사장 시험관 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합격여부는 오는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산불피해 재학생에 장학금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2025학년도 정규 등록 재학생 중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구성원이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전원에게 지원한다.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해당 주소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해중 총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삼육대는 재학생들이



삼육대학교 전경.

/삼육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화·음악·스포츠 즐겨요”… 소비자 여가 맞춤형 마케팅

식품업계, 이중산업 협업 잇따라

오비맥주 ‘한맥’ 수요 한맥회
OTT 왓차 협업, 영화추천 콘텐츠

메가MGC커피 SM엔터와 협업
‘SMGC’ 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SPC삼립 야구개막 맞춰 ‘KBO빵’
구단특징 반영 베이커리 9종 구성



메가MGC커피가 SM엔터테인먼트와 SMGC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메가MGC



삼립SPC는 KBO와 협업한 크보빵 시리즈를 출시했다. /SPC

최근 식품업계는 소비자들이 일상 속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게 여가와 휴식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의 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MZ세대의 취향과 여가 트렌드에 주목해 맥주와 영화, 커피와 음악, 베이커리와 스포츠 등 이중 산업 간의 협업을 통한 감각적인 콘텐츠 결합 마케팅에 속속 나서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영화, 음악,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기반의 여가 활동과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의 일상에 더욱 즐겁고 풍성한 경험을 제안하고, 문화 플랫폼을 매개로 브랜드가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은 최근 신규 캠페인 ‘수요 한맥회’를 통해 주중 피로가 누적되는 수요일에 맥주와 영화를 결합한 여가 시간을 제안하고 있다. 한맥 특유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풍성한 거품을 강조하며, 천천히 음미하기 좋은 제품 특성과 영화를 감상하는 분위기를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맥은 OTT 플랫폼 ‘왓차(WATCHA)’와 협업을 진행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영화 추천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생크림 거품을 비롯한 경품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향후에는 OTT 플랫폼 무료 콘텐츠, 영

화 관련 협업 상품 출시, 영화제 후원 등을 통해 영화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메가MGC 커피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프로젝트 ‘SMGC’를 통해 커피와 음악, 팬 경험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전국 3500여 개 매장을 기반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K-팝 문화를 오프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SM 신인 그룹 ‘하츠투 하츠(Hearts2Hearts)’와의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매장 내에서는 데뷔곡과 CM송이 송출됐고, 멤버들이 선정한 ‘최애 메뉴’를 통해 팬 참

여를 유도했다. 최근에는 두 번째 아티스트로 ‘엔시티 위시(NCT WISH)’를 선정하고, 브랜드 모델 손흥민과 함께 한 TV 광고를 공개하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SPC삼립은 프로야구 개막 시즌을 맞아 야구 팬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크보빵(KBO빵)’ 시리즈는 각 구단의 특징을 반영한 9종의 베이커리 제품과 야구 배트 모양의 롤케이크로 구성했다.

각 제품에는 구단 마스코트, 선수, 국가대표 라인업 등이 담긴 총 215종의 ‘띠부띠’ (탈부착스티커)이 랜덤으로 동봉돼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집 열풍이 일며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 판

매를 돌파, 과거 ‘포켓몬빵’을 능가하는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문화 및 스포츠 콘텐츠와의 협업은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서 오뚜기가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협업해 ‘진라면X카리플’ 용기면과 컵면을 출시했을 당시 해당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29.4%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도드람이 2017년부터 한국배구연맹과 프로배구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맺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것을 예로 들면, 2023~2024 V-리그 시즌 동안 미디어 노출을 통한 스폰서십 효과가 총 419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또한,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6.8%가 도드람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도드람한돈의 취식 및 구매 경험도 전년 대비 7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취향과 문화에 밀착해 경험 중심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향후에도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협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칠성음료, 강원권 물류네트워크 최적화

강릉물류센터 준공식

속초·강릉지점, 강릉직매장 통합
공장-물류센터 자율차 수송 예정

롯데칠성음료가 강원 지역 거점 역할을 할 물류센터를 오픈하며 물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일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21에 강릉물류센터를 오픈하고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 약 4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인과 축사, 강릉물류센터 소개에 이어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는 강릉지점과 속초지점, 강릉직매장 등 각각 운영되던 물류운업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자 강릉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강릉물류센터는 음료, 주류 보관창고, 공병장, 주류 패키지 작업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릉공장 및 강릉 IC와 10분 내에 위치한 입지도 장점으로 꼽힌다. 강릉물류센터는 대표 소주



롯데칠성음료는 2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강릉물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왼쪽에서 여섯번째), 김홍규 강릉시장(일곱번째) 등 관계자가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는 모습. /롯데칠성음료

공장인 강릉공장에서 생산된 주류 제품뿐만 아니라 음료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강원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강릉공장과 강릉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물류 수송 시범 운영도 검토 중이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오픈식에서 강릉시와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제품 운송을 해양경로까지 다각화 해 물류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상생 발전에도 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

데칠성음료는 부산항까지의 제품 운송 수단을 기존 육로에서 옥계항을 활용한 해양 경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옥계항을 통한 일본 직로 개항 등 물류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강릉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또한 옥계항 활성화 추진은 더욱 다양한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한편,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외국인 관광객 위한 ‘AI 통역’ 도입

명동·홍대 등 직영점 5곳 시범운영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직영점을 중

심으로 시범 운영에 나섰다

C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명동, 홍대, 인천공항 등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직영점 5곳에 휴대용 단말기(PDA)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CU가 선보이는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는 기존 점포에서 사용 중인 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점포 내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역 시스템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체코어, 힌디어, 스와힐리어 등 총 38개 언어를 지원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햇반 라이스플랜’ 누적판매 150만개 돌파

CJ제일제당, 출시 5개월 성과

상품밥 시장도 건강 레시피를 녹여낸 햇반 라이스플랜의 인기가 뜨겁다.

CJ제일제당은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집밥 플랜을 모토로 한 ‘햇반 라이스플랜’이 출시 다섯 달 만에 누적 판매 150만 개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니스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햇반의 웰니스 제품 중 하나인 햇반 곤약밥보다 2배 이상 빠른 판매 속도다.

지난해 말 첫 선보인 ‘햇반 라이스플랜’은 저속 식단 관리로 주목받고 있는 노년과 정회원 교수의 레시피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햇반 렌틸콩현미밥+’와 ‘햇반 파로통곡물밥+’ 2종으로 출시됐으며 두 제품 모두 삶은 달걀 1개 이상의 단백질과 바나나 5개 이상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밥이다.

‘햇반 렌틸콩현미밥+’는 렌틸콩을 핵심으로 귀리, 현미, 백미가 각각 4:2:2:2로 배합했으며, 단백질 11g, 식이섬유 15.3g을 함유한 제품이다. ‘햇반 파로통곡물밥+’는 밀의 일종인 고대작물 ‘파로(Farro)’와 다양한 통곡물을 배합한 제품으로 단백질 8g, 식이섬유 12.2g을 함유한다. 파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작물 중 하나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용인 신축 통합연구소 개관

기존 홍천·청주 연구소 통합형태

하이트진로의 새로운 100년 성장 기반이 될 통합연구소가 개관했다.

하이트진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신축 통합연구소를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홍천 맥주 연구소와 청주 소주 연구소를 통합하는 형태로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주류 및 신규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31일에 열린 개관식에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통합연구소장 전장우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통합연구소 개관을 축하하

는 자리를 가졌다.

신축 통합연구소는 2023년 12월말 공사를 시작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 2월 완공됐다. 연구 시설, 업무 지원 시설, 공용 시설, 보안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드&뉴 스택드 디자인(Old&New Stacked Design)’을 콘셉트로 설계된 통합연구소는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와 혁신성을 동시에 반영했다. 층층이 쌓여져 올라가는 형태의 연구소 외관은 1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중앙부에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아트리움 구조는 개방감을 강조하여 혁신성을 나타냈다.

/신원선 기자

“TV에서 본 연예인 추천 제품,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해요”

CJ온스타일 ‘컴온스타일’ 팝업

오늘부터 13일까지 성동구서 운영
발견형 소비 트렌드 맞춰 공간 구성
취향 콘텐츠 접목·큐알 구매 특징
가벼운 품목부터 리빙 제품까지

CJ온스타일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었다. TV홈쇼핑 채널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머스까지 확장해 온 CJ온스타일이 이번에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로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3일 서울 성동구 연무장로에 문을 연 CJ온스타일의 ‘컴온스타일’ 팝업스토어 매장에는 온라인과 TV 화면 속에서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했던 상품들이 각기 고유의 콘셉트로 진열돼 있었다.

컴온스타일은 CJ온스타일 이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대규모 쇼핑 축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모바일과 TV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 상반기에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열어 고객 경험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CJ온스타일은 이번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이유로 ‘발견형 소비’ 트렌드의



CJ온스타일 컴온스타일 쇼케이스 팝업스토어 전경

/CJ온스타일

변화를 들었다. 최근 소비자들이 구매 상품을 검색해 찾던 목적형 소비에서, 콘텐츠를 탐색하다 발견한 상품을 구매하는 발견형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자. CJ온스타일은 첫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들이 취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셀럽과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상품을 직접 접하며 쇼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팝업스토어는 ▲슬로우에이징 존 ▲하이라이트 존 ▲뷰티 백스테이지 존 등 총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팝업스토

어 복도를 따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슬로우에이징 존’은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 공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최화정쇼’, 뷰티 프로그램 ‘갯잇뷰티’, 패션 모바일 라이브쇼 ‘한예슬의 오늘 뭐 입지’, 랜선 홈투어 라이브쇼 ‘안재현의 잠시 실내합니다’ 등에서 소개된 다양한 제품들이 구역별로 진열돼 있었다.

TV홈쇼핑에서만 보던 상품들을 연예인의 취향 콘텐츠와 접목해 간편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 한예슬이 추천하



‘안재현의 잠시 실내합니다’ 공간. /안재현 기자

는 코디, 최화정이 소개하는 음식 재료, 안재현이 제안하는 리빙 용품 등을 매장 내 큐알코드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하단에 있는 큐알코드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구매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눈에 띈 점은 ‘안재현의 잠시 실내합니다’ 코너에서 로보락 로봇청소기, 침대, 소파, 엘피(LP) 기계, 심지어 싱크대까지 큼직한 인테리어 제품들을 큐알코드 한 번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기존 팝업스토어가 패션과 화장품 같은 가벼운 소비 품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컴온스타일 팝업스토

어는 리빙 제품까지 아우르며 소비의 폭을 넓힌 것이었다. 성수 팝업스토어에서 싱크대는 물론 침대와 소파까지 큐알코드 한 번으로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소비 흐름은 또다시 변화하고 있었다.

슬로우에이징 존을 지나면, CJ온스타일이 선보이는 단독 상품들이 진열된 ‘하이라이트 존’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본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신발 브랜드인 ‘오하나 하타케’가 국내에 선보이는 상품들이 이번 컴온스타일 팝업스토어에서 최초로 전시돼 있었다.

행사 기간 매일 1개 브랜드의 뷰티 클래스를 진행하는 ‘뷰티 백스테이지 존’도 마련됐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최근 CJ온스타일은 프리미엄 뷰티를 강화하고 있다”며 “뷰티 백스테이지 존은 트렌디한 뷰티 라인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 첫날부터 매일 한 브랜드씩 뷰티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온스타일 김승희 마케팅전략팀장은 “이번 쇼케이스 팝업은 영상 콘텐츠, 상품, 판매자(셀러) 이 세 가지를 통해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발견형 쇼핑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재현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정부, 바이오의약품 CDMO 성장 위해 적극 지원해야”

향후 5년 내 약 79兆 규모로 커질 것
바이오시밀러 개발 활발해질 전망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성장세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약 79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매출액 상위 20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트루다’의 경우, 머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오는 2028년과 2031년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 진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전개해 바이오시밀러 적기 개발에 주력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통해 투약 용량이 정해져 있어 임상 2상을 건너뛸 수 있다.

셀트리온도 후속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으로 키트루다 바이오시

밀러 ‘CT-P51’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 글로벌 임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달 1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CT-P44’ 글로벌 임상 3상 파트 1 계획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도 ‘CT-P44’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다잘렉스는 글로벌 빅파마 존슨앤드존슨의 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시장 매출액은 약 13조원에 달한다. 2029년과

2031년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43.7%다. 같은 기간, 세계 1위 의약품 CDMO 기업 스위스 룬자가 기록한 12.4% 대비 3.5배 큰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4.7%로 세계 5위에서 2022년 7.5%, 2023년 8.5% 등이 점유율로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CDMO 사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국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알테오젠 헬스케어 고진국 대표이사 선임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지난 3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고진국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고진국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을 수료했다. LG생명과학에서 마케팅 및 영업을 담당했고,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사업부 한국안센에서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성장을 견인했다.

이후 알테오젠 자회사 알테오젠 헬스케어에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현재까지 알테오젠 자체 제품의 영업 및 마케팅 부문에서 역량을 쏟아왔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이치는 크림 제품 포장 특성 강조 디자인 적용

동아제약은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는 크림을 재단장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제품 포장에는 제품 주요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전면에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제’라는 문구를 삽입해 제품의 주요 적응증을 보여주고 주요 특성인 스테로이드 무첨가도 기재했다.

측면에는 이치는 크림의 4중 복합성분인 ▲헤파리노이드 ▲디펜히드라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알란토인을 각각 상징하는 마크를 넣어 성분별 특징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이청하 기자

‘ANUGA 2025’서 K-푸드 위상 알린다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사상 최초 주빈국으로 지정

한국이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인 독일 ‘ANUGA 2025’에서 사상 최초로 주빈국(PartnerCountry)으로 참가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오는 2025년 10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ANUGA 2025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ANUGA’는 전 세계 100여 개국 8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16만 명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 식품 박람회다. 한국은 이번 주빈국 지정을 통해 전시, 홍보 등 박람회 전반에서 독점적 특별 지원을 부여받아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협회는 국내 식품 선도기업 12개사로 구성된 ‘K-푸드 선도기업관’(88개 부스 규모)을 마련하고, 박람회 메인홀(5.2/Fine Food) 정문 앞에 배치한다. 참가기업들은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독립 부스를 통해 개별 역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Flavor Meets Trend’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공통 키 비주얼을 통해 통합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람회 주최 측인 쾰른메쎄는 한국이 올해의 주빈국으로 공식 선정됐음을 전 세계 언론에 발표했다. 한국은 ▲식음료 산업 및 음식 문화 홍보 ▲글로벌 유통사와의 네트워킹 지원 ▲쾰른 시내 및 전시장 내 ‘KOREA’ 로고 홍보 ▲ANUGA 공식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언론 보도 및 디지털 광고 ▲공식 개막식 및 정상회담 초청 등 전방위적 홍보 및 교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OTTERIA™

감자연구소 못난이 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 상기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카이스트 ‘미래세대와의 AI 토크콘서트’

최태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링... 제조 경쟁력 올려야”

최 회장, 청년 창업자·연구자 소통
“근원적 경쟁력 없이는 생존 어려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링(모으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모으고 모든 솔루션을 한꺼번에 적용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조의 경쟁력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밖에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KAIST 대전 본원 KI빌딩 서남표 퓨전홀에서 진행된 ‘미래세대와의 인공지능(AI)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설사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고 생산 공장을 한국이 아니라 다른 데 옮긴다고 해도 백그라운드 기술이 없으면 솔직히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것도 할 수가 없다”며 근원적인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번째)이 3일 KAIST 대전 본원 KI빌딩 서남표 퓨전홀에서 진행된 ‘미래세대와의 AI 토크콘서트’에서 KAIST 출신 청년 AI창업자 및 연구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어 “그 나라에 가도 어쨌든 AI와 제조업이 결부되니까, 경쟁자들은 어떤 형태든 자신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경쟁력 없이 다른 데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시간에는 최태원 회장, 이광형 총장이 함께 KAIST 출신 청년 AI창업자 및 연구자들 간에 AI산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 생생한 AI 산업 현장의 소리를 전하며 국내 AI 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베슬AI 안재만 대표는 “AI가 기업의 전략·기획·제품 개발 등 전 분야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수많은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통합 운영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 미래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틱 이찬 대표는 “AI는 이미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며 “만약에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에게 나를 왜 만들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적 방향으로 그 물음에 답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 창립 24주년 기념식

우리금융그룹은 창립 24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특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창립기념식은 행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했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에쓰오일, 화상 피해환자 치료 지원

에쓰오일은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화상 피해 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방주완 에쓰오일 CFO, 허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LG, 이공계 인재육성 팔 걷어

테크콘퍼런스에 과학고 학생 초청
AI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경험 공유

LG가 석·박사 과정의 이공계 인재와 과학고 학생들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로 초청해 연구개발(R&D)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서 L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행사에는 처음으로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해 LG의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연구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LG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R&D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LG의 기술 리더 27명이 직접 강연을 펼쳤다. 강연 주제는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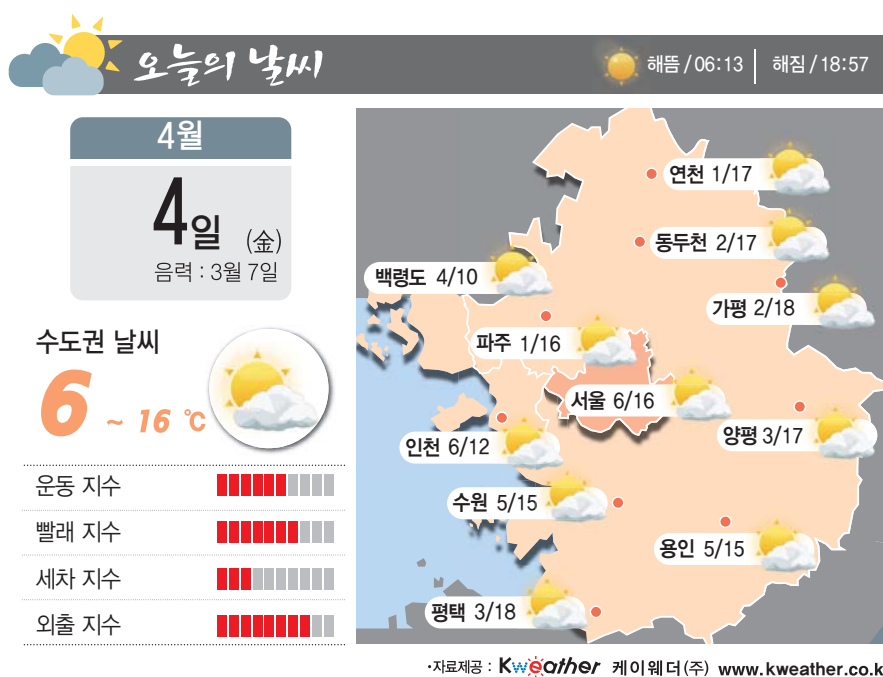


LG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해 LG의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연구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권봉석 LG그룹 부회장(뒷줄 왼쪽 두번째)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의 스마트 물류 등으로 구성됐다. 또 LG 연구진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여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공유하는 기술 교류 세션도 마련됐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 아래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산불피해 복구

유한양행, 1.3억 상당 구호물품 지원

파스류·주방세제 등 전달

유한양행은 경상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안티푸라민 파프 및 생활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여 개와 피해복구를 위한 해피홈 주방세제 3000여 개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 유한양행 조옥제 사장(사진)은 “이재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두산에너지빌리티, 성금 1억 기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경남지역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남도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

상남도 산청, 하동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과 생필품 지원,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JW중외제약, 1억 상당 성금·의약품 전달

JW중외제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권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성금과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 5000만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피해지역이재민의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달한 의약품은 5000만원 상당으로, 화재 후 눈 자극과 건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이재민을 위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환부를 보호하는 저자극 일회용 밴드 ‘하이맘밴드 센서티브’ 등 구호물품이다.

/이청하 기자

LS
LS러브스토리 2호 선정

LS는 최근 경북지역 산불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웃을 구하다 순직한 박현우 기장과 권영선 이장을 ‘LS Love Story’ 2호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2호로 선정된 두 고인은 경북지역 산불이 겹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

/차현정 기자



중근당고촌재단, 청소년 문화사업 추진

중근당고촌재단은 최근 영등포문화재단과 ‘청소년 문화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왼쪽)과 영등포문화재단 이강환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근당고촌재단



소진공-대한상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24대 회장 상산건설 박경재 대표이사



www.news1.com



뉴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시스와 손을 잡고 뉴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시스!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이수준
부동산수첩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계약 247만6870건 중 월세 계약은 142만8950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법 변경으로 인한 신규 전셋값 상승, 1~2인 가구 증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전세사기 여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전세금이 원체 비싸서 월세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여전히 갭투자가 유효하다고 보는 서울의 아파트도 2024년 4분기 월세 비중이 44%로 아직은 전세보다 적지만, 이 또한 직전 분기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세제도는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독특한 형태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고성장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연 15~20%의 고금리 환경에

서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거나 투자의 기회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세비율은 극에 달했다. 집값도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던 시기에는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올려가며 다시 전세 낀 집을 늘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1980~90년대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 금리가 5% 미만, 2010년대부터는 2% 이하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으로서의 전세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부담 문제가 부각되면서, 임대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되는 흐름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약이 줄어들면 실거주 수요가 핵심이 되고, 입지가 좋은 지역(서울, 강남, 주요 학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이자 세입자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재정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규모(2024년 기준 1862조원)에는, 전세보증금(약 800조~900조원 규모로 추정)규모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주택 임대 시 보증금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훨씬 작고 보통 1~3개월치 임대료를 넘지 않는다.

전세비율이 한창일 때 생겨난 또 다른 문제는 전세담보대출이다. 이는 무주택자가 목돈을 끌어서 전세금을 내고 그 채권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소비하는 중복 대출의 문제이다. 전세제도가 악화되면 가계 대출구조도 단순해지고 채무불감증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권의 입장에서 도 전체 대출의 총량이 줄지만, 리스크 또한 줄어들고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는 굳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같은 전세제도의 축소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자정 작용을 하는 셈이다.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산다는 뿌리 깊은 시선까지 바뀌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경제라는 것은 굳이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생물이라는 원론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홈플러스 사태, 달과 손가락은?



허정윤
(자본시장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본다.” 본질은 저기 빛나고 있는데, 그저 눈앞의 손가락만 쳐다보며 왈가왈부하는 꼴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NH투자증권이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를 지원한 것을 두고 ‘농축산업계 피해’와 연결 짓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논리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잘못된 손가락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셈이다.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관하면서 자금을 지원했다. 이걸 투자은행(IB)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브릿지론 형태로,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고 이자 수익과 수수료를 버는 구조다. 문제는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불통이 NH투자증권으로 된 것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와 농축산업계 피해는 ‘홈플러스 경영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지, NH투자증권이 MBK에 돈을 빌려준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자본시장은 경제 생태계의 필수적인 자금 조달 창구고, 금융기관은 다양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순환을 돕는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실패를 이유로 금융기관을 비난하는 건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NH투자증권은 ‘MBK 지원은 업계 표준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선 공개

매수 시 브릿지론 제공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에 NH투자증권을 연결시키려는 묘연의 시도가 보인다. 하지만 농민 돈으로 사모펀드를 돕는다는 식의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이며 이를 연계 지어 문제를 확대하는 건 금융 구조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자본시장 논리를 흐리면서까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건 이미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멈추고,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4일 (금 3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 48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대비. 60년생 이득을 보고자 함에 내 뜻만 관철할 수는 없다. 72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낭패 보기 십상. 84년생 무슨 일든 다시 찾아 도전.



37년생 손해를 났어도 다시 분석하여 깨닫자. 49년생 조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61년생 형제의 방문으로 근심이 쌓인다. 73년생 승진 노력에 상심 말고 외국어 공부에 도전. 85년생 고부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게 된다.



38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0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게 된다. 62년생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이혼 도장은 다음으로 미루라. 74년생 실력 없이 잘난 척 마라. 86년생 언행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뒷말.



39년생 원숭이띠와 의견대립을 조심. 51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하자. 63년생 내가 웃으니 거울도 따라 웃는다. 75년생 실력 발휘가 되니 조직에서 영업 이득이 발생한다. 87년생 초저녁에 꿈을 꾸니 잠을 설친다.



40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시간도 많고 세상도 넓고 누구 말대로 할 일도 많다. 52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마라. 64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76년생 기쁨 근심은 양면. 88년생 세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없다.



41년생 약속을 잊을 수 있으니 메모. 53년생 명심보감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65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해수도 있다. 77년생 일찍 귀가하자. 89년생 새로 집 짓는 일에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니 조심.



42년생 자식이 돈 따라 해서 내주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니. 54년생 공상의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66년생 내가 모르는 분야를 모른다고 인정해야. 78년생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수. 90년생 승관의 나쁜 폐단은 근절.



43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55년생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꼴볼견. 67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 선수가 되기 어렵다. 79년생 실질적인 힘을 써라. 91년생 일의 순서에 억지로 주장을 펼치지 말도록 해야되니.



44년생 재물은 들어오니 위로가 된다. 56년생 재혼배우자가 될 인연이 이어진다. 68년생 싫다고 다 내뱉으면 누가 내 곁에 남아 있겠는가. 80년생 신의가 없으니 주변에 사람이 없다. 92년생 누군가가 자기만의 십자기를 짊어지는 게 인생.



4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즐거움이. 5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69년생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꾸어 행운이다. 81년생 동업자와 뜻이 맞아 영업에 이득이다. 93년생 목표를 다 얻을 수가 없으니 실천부터.



46년생 돈이 없으니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58년생 남이 막연히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70년생 이별에 미련 버려라. 82년생 발전하기 위해선 믿음과 신뢰는 상관관계이다. 94년생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한다.



47년생 삼재이니 말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59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 능동하면 된다. 71년생 지난 일은 잊고 내일 일을 챙겨라. 83년생 투자보다는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라도 지켜라. 95년생 실력이 없이 미래를 미리 예단하지 말 것.

김상회의四季

나 하나라도

살아가는 일 자체가 전쟁 아닌 것이 없다. 말로는 선의의 경쟁이라 하지만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니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각 사회와 정당, 종교와 국가들 역시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6.25 동란 이후 사실 휴전상태이지 정전이 아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도 명백한 도발인데, 세계상 유례없는 분단상황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역시 그림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중동지역 역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지역이고 동남아의 미얀마 역시 종족 간의 분쟁으로 골치 아프며, 아프리카 역시 종족 간, 나라 간 싸움이 끊임 없이 있다. 그렇게 사이가 좋던 미국과 캐나다도 무역분쟁으로 유례없는 냉담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경기도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의 우방을 자처하던 미국이 자국 위주의 이익 우선 정책을 펴면서 세계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던져 버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가 평화라 하지만 애초에 평화는 없었던 것이며 요원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봐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어느 대륙이고 나라며 뺏고 뺏기는 일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기후와 인간의 싸움이다. 아니, 인간들이 자연과 기후환경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칩을 얘기하며 봄날에 대한 기대로 설레던 것도 잠시, 때아닌 3월의 폭설과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그동안 인간들의 오만한 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누굴 탓하랴마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은 희망을 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종

스도쿠3650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6	2	7	4	9	1	8	8
7	4	8	2	8	1	9	9	6
9	1	8	6	6	9	4	7	2
8	9	1	6	2	7	9	1	8
6	9	4	8	1	8	2	9	7
8	2	7	9	9	4	6	8	1
7	8	6	4	9	2	8	1	9
1	8	9	9	7	6	8	2	4
2	4	9	1	8	8	7	6	9

9	7	2	1	4	8	6	8	9
1	8	4	7	9	6	8	9	2
6	8	9	9	8	2	4	7	1
8	9	1	4	7	8	9	8	6
8	6	7	9	2	9	1	4	8
8	4	9	6	8	1	9	2	7
4	2	8	6	8	9	7	1	9
9	1	8	8	9	7	2	6	4
7	9	6	2	1	4	8	9	8

와인 시장 불황을 이길 키워드… 프리미엄·구세계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프리미엄, 구세계. 와인 수입사들이 꼽은 올해 와인 시장 불황을 헤쳐나갈 두 가지 키워드다.

인기가 시들하다고 하나 와인 수입은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줄었을 뿐 절대적인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많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규모가 2배 이상 훌쩍 늘었으니 우리도 와인 좀 마시는 나라인 것은 분명해졌다. 오히려 유행을 빼고 일상 속으로 와인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와인을 마실지가 관건이다.

먼저 프리미엄 와인이다. 양보다 질, 싼 값으로 많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찾던 시대는 지나갔다. 무알콜, 저알콜 주류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를 만큼 술 자체를 덜 마신다. 와인도 한 번 마실 때



(왼쪽부터)로템 뮈니에 사우마 옴니아, 레 쿠폴레, 파소로쏘, 프란케티, 로템 뮈니에 사우마 이노피아 블랑.
/안상미 기자

제대로 된, 좋은 와인을 마시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음은 구세계 와인이다. 칠레같은 신대륙이 와인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와인 종주국은 취향을 한 단계 올리고 싶은 와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목직한 레드와인 일색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레

드와인이라고 해도 우아하고 복합미있는 스타일로 선호가 바뀌는 것도 구세계를 찾게되는 이유가 됐다.

금양인터내셔널은 올해 프리미엄 와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와인 라인업 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까지 확충했다. 금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프리미엄 와인 시장은 단

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탈리아 테누타 디 트리노로, 파소 피시아로나 프랑스 로템 뮈니에 등과 같은 프리미엄와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템 뮈니에’는 부르고뉴의 DNA를 남부 론에 심은 와이너리다. 부르고뉴에서 가장 인기있는 생산자인 ‘루시엔 르무앙’의 두 부부가 론 밸리로 가서 그르나슈 품종으로 승부를 걸었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품종과 같이 그르나슈 역시 우아함과 복합미를 가진데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없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로템 뮈니에 사우마 이노피아 블랑’은 그르나슈 블랑이 주품종이다. 과실과 허브향에 미네랄까지 복합적이며, 산미는 선명하지만 우아해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다면 부르고뉴 화이트인가 착각했을 와인이다. 이노피아는 라틴어로 결핍을 뜻한다. 황무지같은 척박한 테루아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양조 방식이 모두 함축적으로 들어

간 이름이다.

‘로템 뮈니에 사우마 옴니아’는 그르나슈와 쉬라즈, 무드베르를 섞은 가장 전형적인 사토뇌프 뒤 파프 와인이다. 옴니아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뜻한다. 사토뇌프 뒤 파프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의도다.

이탈리아 ‘테누타 디 트리노로’는 전설적인 양조가로 꼽히는 안드레아 프란게티가 토스카나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설립한 와이너리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선 큰 관심이 없던 까베르네 프랑과 메를로 품종으로 ‘테누타 디 트리노로’를 탄생시켰고,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이탈리아의 슈발 블랑으로 극찬을 받았다.

‘레 쿠폴레’는 테누타의 세컨 와인이다. 포도밭을 특성에 따라 50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매년 테이스팅에 따라 4~5곳은 트리노로, 나머지는 레 쿠폴레를 만드는데 쓰인다. 지난해 테누타에 쓰인 포도나무가 올해는 레 쿠폴레 양조에 쓰일 수도 있어 프리미엄 와인 가운데서는 가성비 최고로 화자되는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서울 시내버스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탑재

메가박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신규 도입한다. 메가 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공공정보와 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으로 두루 활용하며 마케팅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메가박스가 운영할 신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총 7000대에 달하는 서울 시내버스 중 5000대에 한해 설치된다.

시범운행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 예정이다. 디지털 스크린은 선명한 해상도의 37인치 와이드형 LCD를 택했으며 버스 내부 상단에 위치한다.

신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공익성 정보 서비스로는 GPS 기반의 정류장 정보, 공공안전과 서울시 정책 정보 등이 있다. 이밖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안내



하거나 날씨와 주요 뉴스, 또 생활 및 안전 정보 등도 제공된다. 외부 공공기관과 연계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실시간 정보까지 폭넓게 전달할 예정이다.

롯데엔터,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 스틸 6종 공개

지난 2013년, 558만 관객을 돌파한 김병우 감독, 하정우 주연의 스릴러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일본 리메이크 판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가 오는 16일 한국에서 개봉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 프로듀서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 속 폭탄 테러

범과 단독 생중계를 이어가는 일촉즉발 뉴스를 현장 인물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담은 보도 스틸 6종을 공개했다. 폭탄 테러범과의 뉴스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도 스틸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는 16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영화 택시드라이버 등 ‘메가 온리’ 6개 작품 단독 상영

단독 상영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메가박스 ‘메가 온리’가 4월 라인업을 확정했다.

메가박스가 ‘메가 온리(MEGA ONLY)’ 4월 단독 라인업을 공개했다.

‘메가 온리’는 오직 메가박스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단독 콘텐츠를 의미하는 브랜드로 지난달 론칭해 단독 개봉, 단독 상영의 한계를 뛰어넘

고 있다.

4월의 ‘메가 온리’ 단독 상영작은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비기닝 ▲아키라 ▲자전거 탄 소년 ▲밴드립! 잇츠 마이 고 전편: 봄의 양지, 방황하는 고양이 및 콜롬비아 픽처스 명작 기획전 ‘토치 레이디스 픽’ 상영작 ▲택시드라이버 ▲카우보이 비밥 - 천국의 문 등 총 6개 작품이다.



정조의 ‘만천명월’이 답하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굴지의 고도(古都) 서울을 답사한 기록을 엮은 것으로, 4권이 한 세트다. 저자인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위상이 너무 커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면서 “최고와 최하가 공존하는 격차가 큰 도시, 서울을 하나로 묶어 동질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화유산”이라고 밝힌다.

그는 “역사 도시로서 서울의 품위와 권위는 조선 왕조 5대 공경에서 나온다”며 창덕궁의 이야기로 첫째권을 시작한다. 제목으로 삼은 ‘만천명월주인옹은 말한다’는 창덕궁 존덕정에 걸린 정조대 왕의 글에서 빌려 온 것인데, ‘통섭’을 외면하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조인이라 소개해보고자 한다.

존덕정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아름답고 기품있는 정자로, 인조 때 세워진 이래 숙종, 영조, 정조, 순종 등 많은 임금이 이곳에 와서 시와 문장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 단연 으뜸이라 할 만한 건 정조가 지은 ‘만천명월주인옹(만개의 냇물에 비치는 달의 주인) 자서’라는 장문의 글이다. 만천명월의 주인, 즉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 상세히 기술돼 정조의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정조는 “달이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다”며 “달은 각기 다른 형태에 따라 빛을 비춰줄 뿐이다”고 밝힌다.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편

유홍준 지음/창비

이 비취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건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은 정조는 사람은 각자 생김새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치를 터득한다.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쓰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라는 것.

정조는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고, 선한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숨겨주며,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잘못된 것은 뒤통으로 하며, 규모가 큰 자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며, 재주보다는 뜻을 더 중히 여겨 양쪽 끝을 잡고 거기에서 가운데를 택했다”고 말한다.

저자 유홍준은 “통치자의 철학이 밝게 드러나는 천하의 명문”이라며 “정조는 이처럼 만가지를 생각하고 만가지를 고민하며 지냈다”면서 이것이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마음이고 자세라고 강조한다. 1624쪽, 8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트럼프 관세, 이게 상호적이나”…美 설명에도 석연찮은 계산법
/사진 뉴시스

▲중국 상무부, 美 상호관세에 단호히 반대…“반격할 것”

▲EU집행위원장, “美 관세, 세계경제 큰 타격”…대응책 준비 중

▲미국 재무장관, “타국, 보복 말라… 무역 전쟁, 美 유리”

▲日정부,尹 탄핵 결과 주시…역사 문제 강경파 집권 우려“

▲러시아,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미사일 공격… 4명 사망



식품업계
소비자 여가
맞춤형 마케팅
L1



Life

CJ온스타일
연예인 추천제품
오프라인서 구매
L2



1'포레스트웨이가든' 2'네이처가든'
3'투영의 정원' 내 '플로팅 스톤'
4'둔촌진경원' /전지원 기자

솔향 가득 소나무 숲길 바위따라 흐르는 폭포 韓산수화, 단지에 담다

총 1만 2032세대, 국내 최대 단지
다채로운 풍경… 고품격 조경 조성

연못 따라 걷는 돌레길 '네이처가든'
깊은 계곡 거니는듯한 '둔촌진경원'
제주도 작은마을 표현한 '성읍원' 등
다양한 테마에 조각·예술 작품까지

아파트의 미학(美學) 올림픽파크포레온

최근 찾아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포레온은 숲을 의미하는 '포레스트'와 한자어 따뜻할 온, 평온할 온의 합성어다. 푸른 숲에 위치한 따뜻하며 평온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추구한다는 이름에 걸맞게 녹음이 우거진 작은 숲 속 같은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단지가 보인다. 3단지 앞에는 9호선 둔촌오류역이 있어 더블역세권이다. 1~3단지 내에는 위례초등학교가 있고 4단지 바로 앞에는 동북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이밖에도 주변에 한산초·중교, 보성중·고교 등이 있는 학세권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동, 총 1만2032세대 규모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29㎡A ▲39㎡A ▲49㎡A ▲59㎡A·B·C·D·E ▲84㎡A·B·C·D·E·F·G·H ▲109㎡A·B·C·D ▲113㎡A ▲134㎡A·B ▲139㎡A ▲144㎡A ▲156㎡PH ▲167㎡PH로 구성됐다. 시공은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이 맡았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곳곳에서 산책로, 조각상, 석가산은 물론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포토존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메인 산책로인 '포레스트웨이'가 보인다.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숲길을 단지 내에 조성해 짙은 솔향과 소나무 숲길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트 모양의 포토존도 눈에 띈다. 소나무 사이로 하트조형물을 설치했다.

김건주 작가의 작품 '공간 이동(Move in space)'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순환하는 움직임을 통해 발전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그려 나가는 삶의 과정을 형상화했다.

다양한 테마의 정원도 곳곳에 배치했다. 자연형 연못과 수변테크, 잔디광장으로 이뤄진 공간 '네이처가든'은 연못 주변으로 조성된 돌레길을 따라 걸으며 이웃들과 커뮤니티를 조성할 시간을 제공한다. 노랑꽃창포, 물억새, 부채붓꽃을 적용한 수생비오톱도 마련돼 있다.

'크라우드 가든'은 다채롭게 꾸며진 초화 정원과 그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보면 잔잔한 안개가 펼쳐진다. 특히 한여름 무더위에 지쳤을 때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성읍원'은 제주 산아래의 작은 마을을 표현한 정원이다. 이끼석, 현무암 괴석을 무심히 놓고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팽나무와 산기슭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했다. 동틀 녘에 나지막한 현무암 돌담에 앉아 있으면 안개 낀 제주의 고즈넉한 아침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가을에 빛을 발하는 노르웨이단풍, 중국단풍, 은목서가 심겨진 정원 '만추원'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조각상이 있다. 단순한 형태가 아닌 겹겹이 겹쳐진 층으로 조각된 작품으로 각자의 유년 시절에 있었을 기억을 매개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휴휴원'은 '물 위에 떠 있는 바위산'을 의미하는 '부소담약'에서 착안, 70m의 계류와 연못, 네 개의 폭포 주변에 소나무와 배롱나무를 식재했다. 한국의 돌과 물의 풍경 속에서 "쉬고 또 쉬어간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위터라운지 '투영의 정원'에서는 유려한 곡선 레이어의 조형 폰트와 미술작품 '플로팅 스톤'을 감상할 수 있다. 떠오르

는 햇살이 작품 뒤에서 흘러내리는 아침과 몽환적인 분위기의 저녁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물의 정원이다.

'둔촌진경원'은 깊은 계곡 물 사이를 거니는 듯한 석가산 수경시설, 둔촌진경산수원, 한낮의 시원한 물길부터 저녁의 고즈넉한 경관 조명까지 다양한 풍경의 변화를 즐길 수 있다.

4단지 역시 다양한 테마의 정원와 조각상이 위치해 있다. 우선 조각상 8개의 대칭정원'이 입주민을 반긴다. 위아래의 극명한 대비와 반사가 만드는 아름다운 환영은 본래 자연과 발달된 인공성이 공존하며 잘 가꾸진 우리 시대의 환경을 보여준다.

시원한 수경시설과 특별한 휴게공간이 있는 물빛 커뮤니티 정원 '스트림웨이 가든', 아름다운 나뭇잎을 감상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휴게정원 '슬로우가든(리프)', 자연을 닮은 석가산, 생태연못 등 싱그러움 꽃빛 커뮤니티 정원 '포레스트웨이 가든' 등이 있다.

넓은 잔디밭과 팽나무 정원을 조성하고 과거 둔촌아파트 411동 인근에 있었던 원기둥 조형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치한 '메모리얼가든'에서는 시원한 팽나무 그늘 아래에서 과거 둔촌아파트의 추억에 잠겨볼 수 있다.

김용관 작가의 작품 '대칭행렬:눈빛'은 눈 결정체와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똑같은 모양의 눈 결정체는 없듯 우리의 일상도 멀리서 보면 평범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매 순간이 특별함을 나타낸다.

'위킹 위드 프렌드' 피카소의 작품 중 선을 최소화한 동물 드로잉에서 모티브를 얻어 캔버스가 아닌 3차원 공간 속에 새롭게 재현한 작품이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아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담아 행복을 선사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